

정부에서 10억 지원

‘가산불교대사람’ 발간

가산불교연구원(원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이 발간 중인 <가산불교대사람> 발간사업이 정부로부터 5년간 10억원을 지원받는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삼만)은 6월 23일 인사사회분야 기초연구과제지원(토대연구)에서 선정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선정 과제 25건 중 가산불교 연구원은 불교학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연구원은 앞으로 5년 동안 9억8140만원을 지원 받아 <가산불교대사람> 12-16권까지를 편찬할 계획이다.

한편, <가산불교대사람>은 지관 스님이 교육현장에서 30여 년을 지내며 편찬중인 불교대백과사전이다. 15만여 개의 불교술어가 수록될 예정으로 가산불교연구원이 1999년 제1·2권 출간을 시작으로 매년 1권씩 발간해 왔다. 2008년 ‘보살계본’에서 ‘분비’까지 ‘보’ 항목을 다룬 10권이 출간됐다. 조동섭 기자

동아시아 문화 조명

고려대·버클리대 국제포럼

국내외 학자가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유교를 통한 동아시아 문화를 재조명했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한국문화연구단과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원은 6월 24-27일 고려대에서 ‘동아시아 문화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하여’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로버트 버셀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한국 불교를 주제로 기초강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루이스 랭카스터 미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 ‘불교 정전(正典)-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의 구현’에서 중국에서 불교경전이 북적·전파된 과정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전화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요르그 플라센 독일 보름네 교수는 ‘서구의 동아시아 불교 연구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에 대한 견해’를 통해 서구학자들이 서구문화 연구 방법으로 불교학에 접근하려는 시각을 지적하는 한편, 새로운 연구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칠불암 마애불상군 등 3건 국보 승격

혼란 우려 지정명칭도 변경... ‘이현국 호성공신교서’ 보물 지정

‘경주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보물 제200호)과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 벽화’ (보물 제1313호),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 (보물 제1366호)이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경주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등 국가 지정문화재(보물) 3건을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 한다”고 6월 29일 밝혔다.

이들 문화재는 국보 승격과 함께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은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으로,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후불벽화’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로, ‘송광사 화엄전 화엄탱’은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로 각각 지정명칭이 변경된다.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경주 남산에 있는 수많은 불상 중 대표적인 마애불상군이다. 넓은 면의 암벽에 황마촉지인(降魔觸地印)의 본존과 입상의 두 협시보살상(본존을 옆에서 모시고 있는 불상)을 높은 부조로 표현했고, 그 앞쪽 사면석주의 각 면에는 비슷한 크기의 불좌상을 부조해 모두 일곱 구(龕)로 구성되어 있다.

삼존상은 절제된 얼굴표정, 직함한 신체 비례와 탄력 넘치는 양감, 그리고 유려한 선의 표현 등에서 통일신라시대 전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조각 기술과 예술적 감각, 그리고 종교적인 숭고미를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된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오춘영 학예연구관은 “삼존상 앞에 놓인 사면석주에는 각 방위를 주재하고 있는 부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이곳의 사방불은 이후 전개될 석탑 사방불의 조형이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큰 조각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조선전기 불화를 대표하는 벽화로 알려져 있다. 무위사 주불전인 극락보전불단 뒤편 후불벽면에 그린 ‘아미타여래삼존도’로 화면 중앙의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지장보살을 좌우에 배치했다. 이어 상단 구름 속에 상반신만을 표현한 6구의 나한상과 4구의 화불(化佛)을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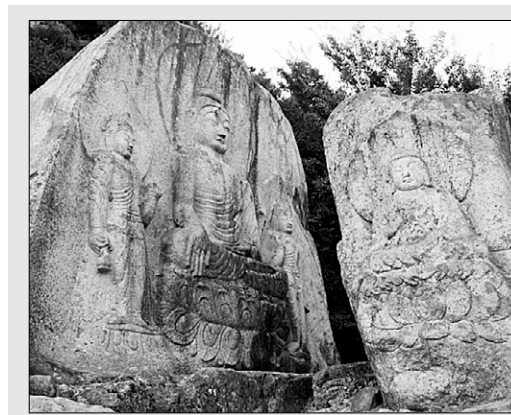
오 학예연구관은 “강진 무위사 극락전 벽화는 1476년(성종7)이라는 제작시기와 조성 주제, 작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데에서 조선 초기 불화 연구에 있어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불화로 평가되는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화엄경(華嚴經)> 역본 중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경에 의거해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이 행해지는 칠처구회(七處九會)의 설법 장면을 하나의 화면에 그린 불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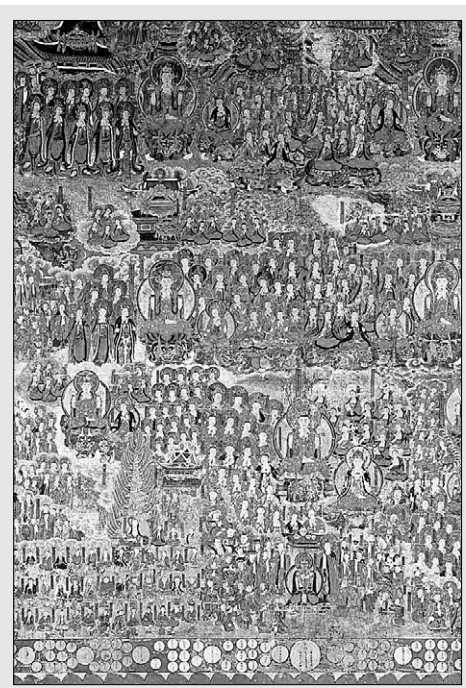
화기에 따르면 ‘송광사 화엄경변상도’는 1770년(영조46) 무등산 안심사에서 연화(蓮華) 등 13명의 승려화가가 조성에 송광사 대 화엄전에 불안했다.

이 작품은 국내에 알려진 채색 화엄경변상도 중에서 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날, 문화재청은 “명칭이 동일 유형과 달라서 혼란이 우려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국보로 승격된 경주 마애불, 송광사 변상도, 강진 무위사 벽화.



던 국보 제243호 <묘법연화경> 등 6건의 국가 지정문화재 명칭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보 제243호 <묘법연화경>은 ‘상지은니묘법연화경’ 권 제1-7(緣紙銀泥妙法蓮華經 卷第一-七)로 명칭 변경됐다.

또 △국보 제243호 ‘현양성교론’ 권11(顯揚聖教論 卷十一)을 ‘초조본 <현양성교론> 권제11(初雕本顯揚聖教論 卷第十一)’로 △국보 제244호 ‘유가사지론’ 권17(瑜伽師地論 卷十七)’은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17(初雕本瑜伽師地論 卷第十七)’로 △국보 제245호 ‘신전일체경원품차록’ 권20(新續一切經源品次錄 卷二十)’은 ‘초조본 <신전일체경원품차록> 권제20(初雕本新續一切經源品次錄 卷第二十)’으로 △국보 제246호 ‘대보적경’ 권59(大寶積經 卷五十九)’는 ‘초조본 <대보적경> 권제59(初雕本大寶積經 卷五十九)’로 △국보 제251호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14(大乘阿毘達磨雜集論 卷十四)’는 ‘초조본 <대승아비달마잡집론> 권제14(初雕本大乘阿毘達磨雜集論 卷第十四)’로 명칭이 바뀌었다.

또 문화재청은 ‘이현국 호성공신교서’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617호)로 지정하고, 보물 제1598호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咸鏡道·京畿道·江原道地圖)’에 ‘함경남도지도(咸鏡南道地圖)’를 추가 지정해 수량을 기존 3장에서 4장으로 정정했다.

보물 제1617호 ‘이현국 호성공신교서’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 세자를 모시고 피란해 끝까지 함께 한 신하들에게 내려진 ‘호성공신교서(褒聖功臣敕書)’ 중 하나로 이현국(1525~1602년) 사후 3년인 1604년(선조 37) 내려진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시 호성공신의 수는 86명에 달했지만, 그 교서로 현재 남은 것은 매우 희귀하다”며 “‘이현국 호성공신교서’는 그의 전기 자료로서의 가치를 넘어 임진왜란사 연구와 고문서(古文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史料)”라고 말했다.

이외 ‘보물 제1598호 ‘함경도·경기도·강원도지도(咸鏡道·京畿道·江原道地圖)’에 이밖에 ‘함경남도지도’가 추가되면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 기자 cetana@buddhanews.com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청,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 결과 발표

개발 홍역을 앓고 있는 화성 용주사 인근의 수원 용·건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조선왕릉’ 40기가 6월 26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등재된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에 이어 아홉 번째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측은 등재평가 보고서에서 “조선왕릉은 유교적, 풍속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으로 세계유산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지금까지 제례의 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점, 조선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점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등재평가보고서는 “일부 훼손된 능역의 원형 보존과 개발압력에 따른 완충구역의 적절한 보존 지침을 마련·시행할 것” 등을 권고해 주택단지 개발 중인 용·건릉 일대의 보존이 새 전기를 맞게 됐다.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고유제와 대국민보고회를 7월 15일 오전 10시 종묘에서 열고, 향후 ‘조선왕릉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중국북경 3대 영산(靈山) 가운데 한 곳인 산시성 우타이산(五臺山)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조동섭 기자

“한국인 정서에 맞는 범종소리는?”

한국범종학회서 성평모 교수 실험 결과 발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소리에 대한 과학적 실험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범종학회(회장 정영호)는 6월 26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소리, 그 울림의 미학’을 주제로 2009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와 100hz 근처의 초기·후기 센트로이드(중심값)를 가지며 그 차이가 적었다”고 주장했다.

또 “여운음에서 큰 역할을 하는 2번째 부분음의 맥놀이 주기가 0.5-1초 정도일 때 선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이보다 짧은 주기를 갖는 경우 선도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행사에서 성평모 서울대 교수(사진) 등은 주제발표 ‘한국 범종 선도와 음향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통해 종소리의 주파수별 특성에 따른 선도를 발표했다.

성 교수는 “선도가 높은 범종군은 100hz 정도의 기본음과 250hz의 정도의 2번째 부분음을 갖고 400hz

성평모 교수는 “한국종에 대한 음색 선도의 등에 대한 음향학적 파라미터 연구는 한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범종의 복원 제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진관사 수륙재 학술대회 9일 개최

서울 진관사(주지 계희)와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7월 9일 오후 2시 진관사 홍제루에서 ‘진관사 수륙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문명대 소장의 기초발제 ‘진관사 수륙재의 역사와 성격’을 비롯해 이강근 경주대 교수가

‘진관사의 수륙사(水陸社)’를 발표한다. 윤은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진관사 수륙재의 의식 절차’를, 김창균 동국대 교수는 ‘수륙재와 영산회 괘불화’를 발표한다. (02)359-8410

조동섭 기자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행복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범명선원

달콤하고 향기로운 심신개혁 템플스테이

1회 8월 1일(토) 1시 ~ 8월 2일(일) 1시 2회 8월 15일(토) 1시 ~ 8월 16일(일) 1시

· 장소_ 강화도 범명선원 (문의전화 032-937-9108) · 참가비_ 10만원 (010-2311-7700)

| | |
|---------|---------------------------|
| 13시~14시 | 자기소개(賓과 나무 이름으로 대체) 및 입재식 |
| 14시~15시 | 마음수련법 (선일스님) |
| 15시~16시 | 내면 정화법 (태광스님) |
| 16시~19시 | 척추교정과 정체운동 (이남진 교수) |
| 19시~20시 | 저녁공양 |
| 20시~22시 | 소리선 쿤달리니 각성(윤도국 법사) |
| 22시~02시 | 수면 명상 |
| 02시~03시 | 마음수련법 (범명사 주지스님) |
| 03시~06시 | 싸이타와 위빠사나 그리고 체조명상 (태광스님) |
| 06시~07시 | 아침공양 |
| 07시~10시 | 동양의학과 육미선생법 (한명준 교수) |
| 10시~12시 | 내면정화법과 수련 후 소감 발표 (태광스님) |
| 12시~13시 | 점심공양 및 회향식 |

■ 지도교수 소개

- 선일스님 : 인도철학을 전공하고 30년 동안 사람들의 심리를 치료한 배터랑 상담학 박사. 저서 : 선도철학 강설 등
- 태광스님 : 붓다의 수행법을 배우려고 태국 미얀마 인도 티베트 등지에서 30년 이상 이룬과 수행을 배운 수행자 지금도 초야에서 정진 중. 저서 - 붓다가 직접 지도한 수행법 등
- 윤도국 법사 : 소리선 쿤달리니를 일깨워서 질병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소리선의 전문가, KBS 밸런스 공채9기 흥 피리 제작 연주자
- 한명준 교수 : 식이요법으로 질병을 치유 예방하는 국내 최고의 식이요법 전문가 캐나다에 대학을 창건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에 출강. 저서 - 동양의학 육미 선생법 등
- 이남진 교수 : 뒤틀린 척추와 자세를 교정하는 국내 최고의 정체 전문가. 저서 - 정체운동 등

범명선원 주지 무상